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0월 26일 (월)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따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총무담당관 박윤정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윤성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윤성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5년 4월부터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각각 1명씩 위촉했고 2025년에는 입법고문 5회, 법률고문 2회, 2026년에 입법고문 7회, 법률고문 3회의 자문 실적이 있거든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목적은 의회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입법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현재 자문 실적을 보면 입법고문에 비해 법률고문 활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또한 자문 받은 내용이 실제 조례 제정이나 의회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대 의회, 전에 1대 의회 최초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초반에는 사실 법률적 취지보다는 의회 입법에 관한 그리고 저희 내부규정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다투는 목적보다는 설립 취지나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사항이 많아서 활용을 법률고문보다는 입법고문으로, 입법고문이 아시다시피 최민수 고문님이신데 이 분이 계속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에 대해서 책도 내시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자문을 구했던 게 사실이고요.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초반에 의원님들 1대에서 2대로 오실 때 연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이 그때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고문 운영 예산은 매년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5년과 ’26년 모두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고문료 지급 기준과 자문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예산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사실상 지금보다 작년이 더 수요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고문료나 자문료가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아서 그대로 600만 원을 유지했고 굳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자문 수요와 실제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지금이 현재 2대 의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도 저희가 궁금한 거라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정화된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고문료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다른 편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쓸 수 있는 요량이 있지만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고문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자문 결과를 실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홈페이지 누리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충청광역연합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은 2025년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끝난 후 2026년에는 1,2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약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계약금액 1,2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으며 실제 유지·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최초 '25년도 누리집 구축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2024년도 말에 구축이 되었고요, 작년부터 했는데 1년간은 구축한 곳으로부터 뮤상 유지·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무상 유지·관리가 끝난 이후에 2026년도에는 저희가 비교견적으로 최저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보시다시피.

○**김명숙 위원** 계약금액 1,2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아,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두 곳, 어디냐 하면 그 당시에…… 두 곳의 비교견적에 의해서 1,200만 원이라는 계약금액이 선정되었고요,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한 게 가온기술. 비교견적을 해서 이분들이 적게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바뀌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라든지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을 또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실제 유지·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지금 무리 없이, 홈페이지 이것저것 공지사항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팝업창 통해서 시·도민 여러분께 하고 있고요.

사실은 홈페이지라는 게 알릴 건 알리는데 들어와서 보시게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는 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홍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별다른 탈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그게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아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누리집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보면 2025년에는 1,700만 2,000원, '26년에는 1,763만 5,000원으로 계약금이 증가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과 별도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두 계약의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는 않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담당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나의 거대한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변경은 뭐냐 하면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교견적에 의해가지고 했는데, 63만 원 정도 이것은 최저가로 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정도 단가 상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건 저희가…….

○**김명숙 위원** 죄송한데 이것 담당직원한테 좀 여쭤볼까요?

○**위원장 윤성규**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윤선** 의사팀장 문윤선입니다. 말씀하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도 비교견적을 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었던 거고요, 2026년도에도 비교견적을 하였는데 우연히 가비아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동일 업체가 연속적으로 대상이 된 것이고, 금액은 비교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과 별도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이용료 두 가지를 지출하고 있는데 두 계약의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의사팀장 문윤선** 네, 홈페이지 서버를 점검하거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에 관련한 용역비고요, 유지·관리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가 네이버나 KT 같은 곳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다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의사팀장 문윤선** 예.

○**김명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성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아직, 마무리할게요.

계약의 업무범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 낭비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감사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개원 이래 첫 번째 감사네요. 하여튼 긴장도 많이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도기라서 고민도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일단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들 인사체계가 1년 단위로 전 임직원분들, 기간제근로자 네 분 빼고는 원상복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겸 지적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 원칙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한 2년 정도는 해당 보직에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 조직이 그렇지만 특히 광역연합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고 도전적으로 가다 보니까 보다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관인데, 이렇게 전원 교체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확보가 안 되고 있지요. 그런 지점들이.

이 부분이 처음에 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추진단에서 진행을 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는 아마 미처 고려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저도 해당 지역에서 인사업무를 잠깐 하다 보니까 파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직원들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을 여기에 보내다 보니까 이걸 최단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그런 일종의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연속성 있게 잘 키워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가령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4개 의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일부 인원은 좀 연속성 있게 두고, 차라리 한 6개월만 더 연장을 해서 7월 정기인사 때 교체를 한다든지 이 정도만 개선을 해줘도 훨씬 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고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인센티브책도 어쨌든 4개 의회에서 합의를 하시면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떠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계속 여기에 파견되어 오셔서 꾸려나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4개 의회에 대한 그런 대화창구를 마련해보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이 바로 전 임시회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신 대로 4개 시·도의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연합처 포함해서,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4개 시도가 한번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거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빠르게 가야 될 것 같고, 더 잘 아시겠지만 공직사회 특성상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또 2년, 3년 사실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도 좋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관심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 인사면 좋을 것이고 안 되면 그 후년이든 아니면 7월 인사든 해서 이 부분은 좀 즉각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지적사항으로 해서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지적사항으로 해주시는 게 저희가 나중에 표출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주셔서 개선사항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의원 임명기간 관련해서는 서론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법률자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광역연합의회 의원님들이 두 번 연속 활동하지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것도 자문 결과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대수를 달리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1대 의원님과 2대 의원님은 그거는 대수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같은 2대 내에서 하반기에 다시 오시는 분이 같이 분이 오시는 건 그건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정재우 위원** 그 부적합한 사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연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연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자문결과를 주십시오.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는 안 되는 게 일부 의원들도 어쨌든 남아서 연속성 있게 꾸려나갈 필요성이 당연히 있을 텐데, 현행 상태로 놔두면 마치 이 광역연합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사실 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하여튼 자문 결과를 주시고요.

어쨌든 엄청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후반기 가기 전에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인사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2대에서 3대로 가기 전에요?

○**정재우 위원** 아니요, 저희가 2대이지 않습니까. 2대 후반기까지 어차피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또 남아서 연속성 있게 계속 저희가 팽창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자문 결과 제출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함께 모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요,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50% 정도 집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의정연구도서 지원이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정연구도서는 전액 미집행하셨고 토론회도 집행률이 약 10% 밖에 안 되지요?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의원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나가셨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대 구성된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다는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의정연구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대 의회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저희가 도서를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목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가 뭔지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11월, 12월 거쳐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정재우 위원** 수요조사 아직 안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의원님들께 일단 필요한 도서는 곳곳에 몇 부를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할 계획이셨는데, 저희가 벌써 구성된지가, 7월입니다. 거의 4개월차 가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재우 위원** 예,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이걸 집행을 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날짜가 8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0월달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놔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저는 관심이 있는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하신 건지, 배치했으면 배치결과를 얘기를 최소 저희 운영위원들한테는 해주셔야 전파가 될 텐데, 사실 서류상으로도 느껴지지 않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도니까 지적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추후에 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이행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른 의회 전문가들을 직원분들이 선도적으로 발굴해주셔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방면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최초에 여섯 번 정도 하려고 최초에 '25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정책토론회 예산을 8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1,200만 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정책토론회를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 11월 23일로 정책토론회가 또 하나 잡혀 있어서 아마 거의 다 이때 예산이 소진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팸플릿도 제작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나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시책 중 하나가 홍보대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홍보대사를 지금 구성이나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저희는 지금 하기 않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와서 보니까 홍보대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 속해 있는 4개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도 충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홍보대사를 선정·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 보기보다 행사라든지 이런 게 광범위하게 있고 홍보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는 상태여서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는 여의도에서 토론회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해서 가다 보니까 인지도 제고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속된 말로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아직은.

나머지 의회들은 상시 의회인 거고요, 저희는 성과를 내야 되는 특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홍보대사가 사실 고민이 좀 있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모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학자들도 있고요, 전문가분들도 있고 하다 못해 사회과학 대학생들, 홍보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훨씬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민

해 주셔가지고요, 태동하는 광역연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지시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대 아닌 기대도 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2대 의회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하지만 2025년에 시작했던 감사까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산집행 내역에서 보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도 있었고 하반기 때 좀 짧았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최초 예산이 계상될 때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사실은 '25년도에는 각 지자체별로 있는 대표적이고 수범적인 사례가 있는 예산들을 갖다가 했고요. 모델을 거기로 삼다 보니까 여기 회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작에 초점을 둬서 열심히는 진행을 했으나 세심함이 좀 떨어졌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을 쓰는 목에 보면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전국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충청권에 있는 광역시도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수단을 했어요. 홍보물 제작도 하고 팸플릿도 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8페이지보면 영상홍보물 제작을 2025년도에도 하고 2026년도에도 하고 진행이 12월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영상홍보물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태동하고 나서 우리 의회가 어떤, 어떤 의원들이 계시고 사

실은 그런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영상홍보물이 가장 효율적이고 뛰어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1대 의원님으로 영상홍보물이 제작되었고 지금 2대 의회 구성되자마자 오리엔테이션하는 데서부터 그 홍보업체를 선정해서 그때부터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15일까지 제작 완료해서 최종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8쪽에 있는 내용이 22쪽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25년도에는 1대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써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해가지고 2개국어, 국어하고 영문버전으로 해서 2개 제작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는 3개국어로 해서 3편을 작성할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좀 찾아봤어요. 올해는 그렇다 쳐도 12월 15일까지 제작을 하기로 했으니 작년에 만든 영상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미디어를 서치도 해보고 했습니다.

영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누리집에 저희가 홍보…….

○**이병하 위원** 누리집에 들어와야지만 홍보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건 홍보가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노출이 되는 곳에 많이 홍보가 게시가 되어야 몰라도 봤을 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제일 미디어 노출이 심하게 되는 SNS 공간이 유튜브, 인스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예로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우리 충청광역연합 행정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는 없더라고요. 맞죠?

그런 데에 우리 홍보물을 올렸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제작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25년도에는 그걸 놓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6년도에는 제작을 하면서 업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중간제작보고회 같은 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좀 더 보완해서 최대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내부로 찾아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표출이 되는 그런 걸로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작을 하는 목적은, 특히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은 널리 알

리기 위함입니다.

널리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560만 충청 시도민들은 이걸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앞으로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신 거죠?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누리집 관리를 운영·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공간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을 하는 게?

그런데 이걸 다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두 군데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광역연합은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이라는 큰 광범위한 메가시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한 군데는 대구, 한 군데는 과천이에요.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준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조사를 해보니까 '24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때 전문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3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해당 업체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자 단가로 그 업체가 들어와서 구축을 완료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쓰고 있는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했으니까 이어서 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최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최저가 입찰을 했다고 쳐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리집 유지·관리하는 업체,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제가 들어가서 다 봤어요. 많은 지자체들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충청광역연합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 충북 거기다 안 하던데?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아, 다른 데에서 하시는지?

○**이병하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충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청에 있는 업체를 써서 가치를 높여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저희가 최저가 수의계약이 아닌 지방에 제한을 둬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구축했던 그 업체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칼이나 방패를 가지고 수의계약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어떤 말씀인지 다 서로가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충청광역이라는 연합체가 탄생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 해봤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이어서 안 했던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사실은 지난달에 의회가 최초로 있었는데 그때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업무보고를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 한 달 만에 뭐가 없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만저만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못했던 것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생각을 붙여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됐으면 질문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최초라서 저희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서만 최초이지 다른 데에서는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세심하게 체크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말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존재 가치가 우리 충청인만 똘똘 뭉치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축이 우리 중원에 있는 충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합처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을 더 잘 보여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디테일이 필요하다. 디테일에서 밀리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충실히 의정활동 열심히 할 테니 우리 사무처에서도 잘 서로 손발 맞춰서 우리 충청도의 힘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 충청광역연합의회에 홍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회의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까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부터 연합장님, 그리고 지금 주변의 환경 자체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역량이 높은 연합의회로 갈 수 있게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의회라든가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발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각 지역마다, 충남·충북·대전·세종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곧 2027년 논산바이오딸기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발전된 충청광역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대표 축제에 저희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홍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디를 가도 요즘 미디어죠, 화면을 표출을 하고 영상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영상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니니까 영상 드리고 협조요청 공문 보내서 저희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홍보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발 빠르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어린이집 많습니다.

아직 우리 홈페이지, 저도 봤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홍보영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저희 의회로 회기 중에 잠깐잠깐이라도 와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모

습을 보여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2027년도 8월부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역할론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저희가 거기와 업무적으로 연계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의회사무처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사실 저희 의회사무처보다는 연합사무처에서는 거기서 홍보라든지, 물론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영상물이 된다든지 하면 다 표출을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표면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쪽과는 어떤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따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건데,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는 4개 시도에서 하는 겁니다.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그러면 한 곳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충청광역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할론에 대해서 저희가 연합처하고 아니면 각 시·도, 조직위원회가 어차피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저는 조직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하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1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의 역할론이 상당히 중요시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개 시·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의 역할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포지션을 잡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그렇고 연합처장님이나 연합장님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활동적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수를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얘기는 그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었다. 그러다보니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저희 충청광역연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인들의 힘을 모아서 그분들보다 먼저 저희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4개 시·도가 모여서 충청광역연합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무처에서 좀 더 발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시아드, 홍보, 그리고 저희가 광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플랜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플랜이라는 게 어쨌든 1대 때는 저희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정신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2대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것,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상임위원장님도 계신데 되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 말이 길어졌기는 했는데 죄송하게도, 4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연합처와 같은 분들하고 빨리, 최대한 빨리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자리를 주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저희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진행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따로 처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장님들 주재의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규** 예.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해가지고 곧바로 저희가 계획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왜냐하면 그런 운영위원장님들의 협의가 있어야 여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혜택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려면 말씀드렸듯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떤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인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뛰셔서 각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적인 부분이나 근무여건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 먼저 진행이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이분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간략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우 위원** 짧게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희 일본공무국외출장 다녀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큰 사건사고 없이.

첫째날인가 저녁에 교류의 장이 있었죠? 그 행사를 누가 준비했죠? 현장 준비랄까요? 기업인분들이랑 같이 했던 것.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그게 둘째날, 그건 대전에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4개 시·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처가.

○**정재우 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거는 큰 건 아닙니다만, 인원별로 명패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부 인원의 글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명이 오류가 난 분이 있었어요.

제 테이블이었고, 그분은 바이어 입장이었는데 엄청 큰 실망감을 사실은 내비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찍어서 회사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명이 틀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 또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주셔서 완성도 있게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재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추진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면 말 그대로 지금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검토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검토중이라는 게 기한이 2025년도에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26년도에도 있지만.

’25년도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검토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검토중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BF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건물주라든지 원상복귀를 전제로 한 그런 것들, 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연합처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고는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굳이 여기다가 검토중이라고 쓴다기보다는 빠른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와 같이 계속 '검토중, 검토중, 검토중' 이라고 하면 가뜩이나 솔직히 저희들이 일이 많지가 않은데 더 없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은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검토중이라는 걸 저희들이 보면 이건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형태를 이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추진완료되는 것들도 보입니다. 저희들이 또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역량을 발휘하시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승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4인)**

김명숙 윤성규 이병하 정재우

○**청가위원**

이한영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광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 의 회 사 무 처 >

의회사무처장 권승학

총 무 담 당 관 박윤정